

삼성 · LG LCD TV 미국에서 최고

Consumer Report 인치대별 평가 1위 석권 ... 삼성 3개 · LG 1개 차지

삼성전자와 LG전자 LCD TV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최고로 인정받았다.

9월26일 관련기업에 따르면, 삼성과 LG전자는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소비자 전문지 Consumer Report의 2007년 LCD TV 평가에서 모든 인치대별(4개군) 품목 1위를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삼성이 3개를 휩쓸며 기존의 면모를 과시했고, LG도 1개를 차지해 브랜드 위상을 끌어올렸다.

1936년 창간된 월간 Consumer Report는 가전제품 외에 자동차, 컴퓨터, 금융상품 등에서 주요 품목을 정한 뒤 기업별로 성능과 가격 등의 우열을 가려내 소비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소비자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유료 구독자만 400만명을 헤아릴 정도이다.

Consumer Report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LCD TV 주요 제품을 평가 대상으로 제품을 46-52인치, 40-42인치, 37인치, 32인치 등 4개군으로 나누고 HD·DVD·SD 해상도, 음질, 리모컨, 편리성, 시야각 등 7개 부분을 Excellent, Very good, Good, Fair 등 4단계 등급으로 평가한 뒤 각 평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쳐 종합 점수를 매겼다.

삼성은 46-52인치 대에서 46인치 보르도 풀HD TV가 HD·DVD·SD 해상도와 음질에서 엑셀런트로 평가 받은 데 힘입어 종합점수 79점을 따내 1등을 차지했다. Sony(46인치 76점), LG(47인치 74점), Sharp(52인치 73점)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삼성은 40-42인치에서도 40인치 보르도와 풀HD 보르도 TV가 나란히 77점, 76점으로 1-2위에 랭크됐다. Sony(40인치)와 LG(42인치)는 74점, Philips(42인치)는 73점으로 5위권에 들었다.

32인치에서도 삼성은 78점으로 같은 점수의 Sony, Panasonic과 공동 1위를 차지했다. Toshiba와 Philips는 각각 73점, 71점으로 밀렸다.

LG전자는 37인치에서 75점을 얻어 올레비아(71점), Sharp(66점), Visio(63점), JVC(59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7월 NPD가 집계한 북미 지역 LCD TV 시장점유율(판매대수 기준)은 삼성 15.6%, Sony 12.8%, Sharp 10.8% 등으로 3사가 빅3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2007년 Consumer Report 평가 때 32인치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을 뿐 그동안 다른 1등 기록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평가결과에 상당히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Consumer Report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기업의 광고를 신지 않고, 평가용 샘플도 받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제하고 "삼성이 북미 지역 판매 1위에 이어 공정한 품질 평가에서도 드디어 명실상부한 1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27>